

산업은행, '22년 뉴딜펀드 민간 주관기관(母펀드 운용사) 선정공고

- 「정책형 뉴딜펀드」 운영에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경쟁 및 창의성 제고
- 민간 운용사가 재정母펀드를 운용하여 '22년 뉴딜펀드 8,000억원 조성 주관

□ 산업은행(회장 이동걸)은 '22년 「정책형 뉴딜펀드」 재정母펀드를 운용하고, 산업은행·성장금융과 함께 뉴딜펀드를 주관할 민간 운용사 선정계획을 1월28일(금) 공고한다고 밝혔다.

□ 민간 운용사는 재정 1,500억원을 활용*하여 '22년 뉴딜펀드 조성 목표 4조원 중 8,000억원 규모(20%)의 펀드를 조성**하게 된다.

* 재정 6,000억원 중 민간운용사가 1,500억원, 성장금융이 4,500억원 운용

** 4조원 중 산은 2조원(50%), 성장금융 1.2조원(30%), 민간운용사 8천억원(20%) 주관

○ 이를 위해, 민간 운용사는 뉴딜펀드의 세부 조성계획 마련*, 자펀드 운용사의 선정**, 펀드별 투자현황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.

* 펀드 세부분야(기업·인프라)·금액결정 및 자펀드 운용사 선정계획 마련 등의 자율성 부여

** 4월중 자펀드 운용사 선정공고 및 2/4분기중 선정(자펀드 운용사가 투자집행 등 수행)

□ 산은 관계자는 “민간 운용사의 뉴딜펀드 주관기관 참여를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창의성을 제고함으로써 뉴딜펀드 운용의 효율성 강화 및 스펙트럼 확대가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
☞ 상세한 내용은 산업은행 공고문 참조 (1.28일 오전 게시)

홈페이지(www.kdb.co.kr) ⇨ 은행소개 ⇨ 홍보센터 ⇨ 새소식 ⇨ 공지사항

□ 한편, 이와 별도로 같은 날 성장금융(대표 성기홍)은 「국민참여 뉴딜펀드」의 공모펀드 결성·운용 및 판매사 협의 등을 수행할 운용사 선정계획을 공고(3개사 이내 선정)하였으며,

○ 공모펀드 운용사 선정을 시작으로 4월중 자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 등을 거쳐 하반기중 2,000억원 규모(국민참여 1,600억원 + 재정 400억원)의 펀드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.

☞ 상세한 내용은 성장금융 공고문 참조 (1.28일 오전 게시)

홈페이지(www.kgrowth.or.kr) ⇨ 공지사항 ⇨ 기타알림

※ 문의처 : 산업은행 홍보실 조성욱 팀장 (☎ 02-787-6072)

성장금융 뉴딜펀드팀 이상원 팀장 (☎ 02-2090-9113)